



金 允 基 會 長
韓 國 科 學 技 術 團 體 總 聯 合 會

總 和 團 結 報

光復 30周年을 마지했던 乙卯年은 多事多難한 가운데 저물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 우리는 印支事態를 비롯하여 休戰線 北傀 땅굴事件等 國家安保에 緊張을 안고 있었고 特히 에너지波動後 繼續된 經濟的 不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難局을 克服하였으며 7%程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으니 무척 多幸스런 한 해 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科學技術界는 한마디로 말해 그 어느때 보다 알찬 結實을 견우었다고 하겠습니다.

光復 30周年紀念 在獨科學技術者招請 綜合 심포지움을 主管한 科總은 國內外 科學技術者間에 協同과 總和의 紐帶를 強化했으며 國外에서 크게 活躍하는 우리 科學技術의 頭腦를 國內에 誘致하는 좋은 契機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 各學會들의 研究活動 面을 살펴보아도 豐饒한 研究實績과 學術論文이 發表되었고 特히 지난해 가졌던 各學會의 行事內容이 눈에 띄게 水準높은 것이었다고 異口同聲의 贊辭를 받았던 記憶이 생생 합니다.

學會의 研究活動이 活發해 짐은 國內 科學技術의 振興을 뜻하는 것이며 產業技術의 向上을 갖어온 慶賀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資源開發, 食糧增産, 重化學工業에 깊은 關心을 갖고 專門委員會를 構成하여 對策을 강구하는데 科學技術人이 叡智를 動員했으며 政策의 方向을 提示하는等 防衛產業에도 關心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技術奉仕團은 全國 9個道의 道團組織을 通하여 專門教授陣이 中心이 되어 科學技術 知識을 農漁民과 새마을工場 等に 指導를 實施하여 많은 成果를 견우었습니다.

특히 1마을 1科學技術者 技術結緣으로 140個 郡單位 마을과 結緣을 맺어 科學營農과 生活環境 改善을 이룩했으며

不況克服한 乙卯年

所得増大를 成就한 事例마을을 續出し킨바 있습니다.

全國에서 1,214名의 科學技術人이 地域特化 事業의 研究試驗을 實施中이며 長期的 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는等 實로 至大한 努力을 하고 있어 名實 共히 새마을 事業의 成就를 加速化시키는 一翼을 擔當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마을技術便覽 10,000부를 增補發刊 普及하여 全國民의 科學化에 寄與하였다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지난 12月 10日 全國 새마을指導者 大會에서 우리 技術奉仕團員中 大統領表彰, 國務總理 表彰을 받는 慶事도 이러한 努力의 結晶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宿願事業인 科學技術會館은 政府의 支援과, 民間企業體의 協助로 새해에는 期必코 完遂하게 되어 希望과 自慰도 됩니다.

保健衛生分野 用語統一 및 改正作業도 중반에 이르렀고 不遠하여 綜合된 科學技術用語集을 펴낼 段階가 온다는 것도 큰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山積한 主要課題를 안고 送年の 幕을 내리게 됨에 悚懼한 面도 있습니다.

오늘날 科學技術의 水準이 한 나라의 國力의 尺度가 되고 있어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항상 莫重한 使命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 科學技術人이 總和團結하여 叡智를 動員하고 頭腦를 開發하여 奉國할 때 우리는 世界의 上位圈에 서게 될 것입니다.

乙卯年에 다하지 못한 未解決의 章을 丙辰年에 풀것을 다짐하면서 웃기를 여깁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協助와 聲援을 보내주신 政府當局과 江湖諸賢 및 會員同志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며 各會員團體와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과 繁榮을 비는 바입니다.